

“에너지 운송 혁신… 이동형 ESS로 도로를 전력망으로”

도전! 스타트업UP

이온어스

디젤발전기 대체 친환경 전력 공급 이동형 ESS로 온실가스 73% 감축 ‘인디고’ 브랜드로 다양한 시장 공략 “에너지 이동공급 수요 클 것 예상”

“모든 도로를 전력망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로 출발, 달리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

실제 전기차에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배터리 모듈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만들고 이를 이동형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발한 이온어스(aeonus)가 그 주인공이다.

“디젤엔진을 이용한 기존 발전기는 소음과 발열이 심하다. 고정형ESS는 한번 설치하면 안전문제 때문에 이동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자칫 화재 위험도 있다. 전기차용 이차전지를 이용한 배터리팩으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우리가 ‘에너지(전기)를 직접 운송하자’는 목표로 창업했다.”

경기 군포에 있는 이온어스 본사에서 허은 대표가 제품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허 대표는 2020년 이온어스를 창업했다. 그에게는 케이씨에스글로벌에 이은 두번째 도전이다.



이온어스 허은 대표가 경기 군포에 있는 본사에서 ‘인디고 모바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창업 당시 허 대표는 연축, 니켈수소, 리튬이온 전지 등 다양한 전지에 대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PMS(Power Management System) 등 ESS 기술 뿐만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10년 넘게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가 이온어스를 창업한 것은 제주 구좌읍에 있는 ‘이고팡(e-GOPANG)’ 전기차 충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고팡 충전소는 BMW의 전기차(i3) 10대의 배터리팩으로 ESS를 만들고 풍력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든 전기충전소다. ‘ESS를 이동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는 호기심에서 출발해 아예 사업화를 결심한 것이다. 허 대표는 “탄소중립 이슈 때문에 앞으로 디젤발전기는 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 디젤에 비해 친환경 ESS는 73%

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산업의 전동화는 이동충전과 이동형 ESS 배터리팩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온어스 군포 본사 1층에는 ‘JEJU e-GOPANG CHARGING STATION’이라는 글씨가 보이는 사람 키보다 큰 ESS 장치가 고스란히 놓여있다.

이온어스는 LG에너지솔루션의 E78 배터리 모듈을 이용해 ‘55kWh 이동형 ESS 배터리팩’(이온어스 MoBatt)을 개발했다. 배터리팩 2개를 현대차의 전기트럭 ST1에 장착해 110kWh 이동전력공급 차량 ‘인디고 모바일(indego MOBILE)’을 만들었다. 인디고 모바일은 야외행사, 공사현장, 재난현장 등에서 디젤발전기 대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꼽힌다.

인디고 모바일은 한번에 5대의 전기차를 연결해 충전할 수 있다.

‘인디고 스테이션’ 모델은 10대까지 동시 충전이 가능하다.

연료가 다 떨어져 길에서 있는 차량에 긴급 주유를 하듯 전기차에 비상용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차 이동충전차량 ‘인디고 차지(CHARGE)’ 역시 대표 라인업 중 하나다.

22명 가운데 8명이 연구개발(R&D) 인력인 이온어스는 그 사이 이노비즈(기술혁신)인증, 그린뉴딜유망기업 100,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딥테크팁스

등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동형 ESS 배터리팩은 국내 최초로 KC인증(62619)을 받았다. 게다가 ESS시스템, 배터리팩, 전력제어, 운영기술 등의 기술에 대해 국내외에서 여러 특허 출원·등록도 마쳤다.

이온어스는 이동형 ESS를 탑재한 차량의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업계 최초로 자동차 제작자 자격을 등록하고 차량 하우징 및 구조물을 직접 디자인, 디지털 검증을 통해 안전한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허 대표는 “이동형 배터리팩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향후 에너지 이동공급에 대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 제품을 기반으로 한 앞선 기술력과 안정성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혁신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온어스는 에너지 모빌리티의 실시간 운영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생산→사용→회수→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온어스는 올해가 5년차다. 2022년엔 1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엔 2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제품 출시 등이 가시화되며 매출이 200억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눈에 띄는 성장세다.

/군포(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상반기 신청자도 기준 확대 적용

정부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센터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에 대해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

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동안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달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기보, 태국신용보증공사와 실무 워크숍

보증제도, 리스크관리 등 공유

기술보증기금이 태국신용보증공사(TCG) 직원들과 보증제도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열었다.

7일 기보에 따르면 워크숍은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경기 용인에 있는 기보인재개발원과 서울 영업점에서 진행했다.

기보는 지난 2022년12월 TCG와 체결한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 이어 제3차 워크숍을 기보 주관으로 국내에서 열게 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프라팻사라나오와 부트라(Praphatsara Naowabutra) 부장을 포함한 6명의 TCG 직원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인재개발원에서 ▲기관소개 및 주요성과 ▲보증제도 및 상품 설계방법 ▲부실관리 및 재기지원제도 ▲리스크관리 제도 등에 대한 보유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TCG 방문단은 이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보 벤처투자금융센터와 종로지점을 방문해 기보의 투자 및 혁신금융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와 기술평가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

여경協 “여성기업 판로확대 모색”

LH와 간담·구매협력 상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LH와 간담회 및 구매상담회를 열고 회원사 판로 확대·지원에 나섰다.

7일 여경협에 따르면 제3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LH경기남부지역본부 국제회의장에서 ‘LH-한국여성경제인

협회 상생협력 간담회 및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LH와 여경협이 공동 개최한 이번 ‘상생협력 간담회 및 구매상담회’는 여성기업 판로지원에 대한 현안 공유와 의견 수렴 및 판로상담을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력 간담회’에선 LH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여경협이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한

LH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경협은 여성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여성기업 보호대책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건의하며 구체적인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여성경제인은 건설산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호텔형 등 라인업 제품 12종 출시

현대리바트가 신혼부부 침실 트렌드를 반영한 ‘트윈 베드’ 라인업 제품 12종을 출시했다.

7일 현대리바트에 따르면 트윈 베드는 두 개의 싱글 침대를 결합해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분리된 수면이 가능하게 특징이다.

침대 헤드 부분에 넓은 확장 패널이 있는 ‘호텔형’, 두 침대를 가까이 붙여 하나의 큰 침대로 보이는 ‘체결형’, 두 침대가 넓은 간격을 두고 완전 분리된 ‘단독형’ 등이 있다.

최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서로 수면에 방해되지 않고 개별 공간을 만들어주는 트윈 침대에 대한 수요가 늘어 라인업을 구축해 신제품을 대거 출시했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두 명이 한 침대를 사용할 경우 서로의 움직임으로 인해 수면에 방해받을 수 있고, 각자 쾌적함을 느끼는 온도가 달라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며 “트윈 베드가 편안하고 개인화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